

강이야기

2

River & Culture



이용수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수자원개발부
(lyswater@dohwa.co.kr)

삽교천 발원지 답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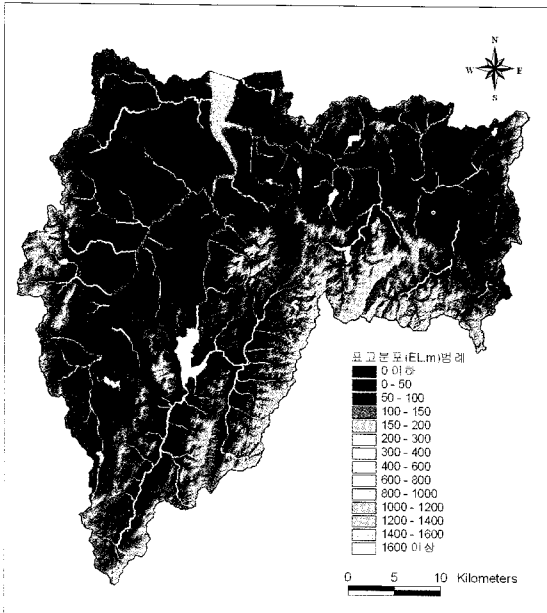
일시: 2008년 10월 25일

1. 삽교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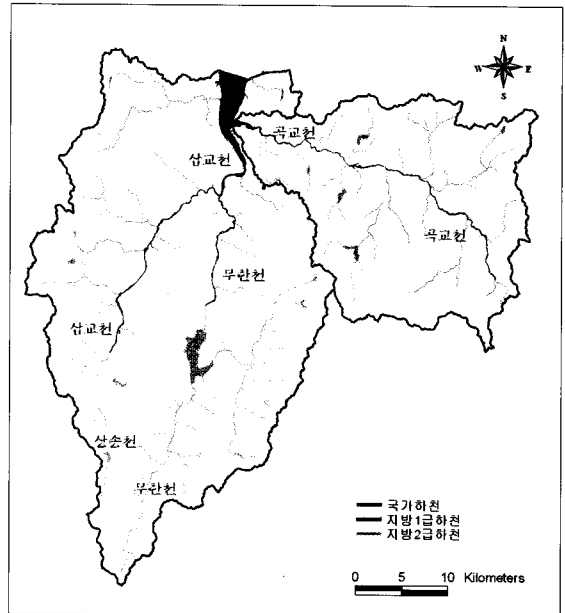
충남 북서부에서 가장 큰 강인 삽교천(插橋川)은 길이로만 보면 무한천보다 짧은 하천이다. 따라서 하구 기준으로 삽교천의 최장 발원지는 무한천(無限川)의 발원지인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백월산(白月山, EL.570m) 북쪽능선이 되며, 이곳을 출발한 무한천은 화성면의 넓은 들판을 적시고 북류하여 충남 서북부 제일의 농업용 저수지인 예당호로 흘러들어가 인근에 있는 여러 논밭의 농업용수 공급처 역할을

하면서 계속하여 북쪽으로 흘러 예산군 신암면 신덕리에서 좌측의 삽교천과 합류한 후, 이어서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에서 우측으로 곡교천(曲橋川)과 합류한 후 삽교호를 거쳐 아산만으로 흘러든다.

삽교천유역의 유역특성을 알아보면 우선 위치상으로 동경 126° 35' 49"~127° 12' 47", 북위 36° 23' 27"~36° 54' 20" 사이에 위치하며, 유로연장은 64.98km, 유역면적은 1,668.39km²이다. 유역의 유역돌레는 268.82km이고, 유역평균표고는 EL.224.32m, 유역평균경사는 27.56%이다. 유역내 행정구역은 충남도의



〈그림 1〉 삽교천 표고분포도



〈그림 2〉 삽교천 하천분포도

아산시, 천안시, 당진군, 연기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역내 총면적 중 산림면적은 733.40km²로서 유역면적의 43.9%이며, 농경지면적은 654.69km²로서 유역면적의 39.24%를 차지한다. 시가지면적은 114.16km²로서 6.84%를 차지하며, 기타 초지, 수역 등이 유역면적의 9.9%인 166.14km²를 차지한다. 유역 내에는 국가하천으로 삼교천, 무한천 및 곡교천 3개소가 있으며 지방1급하천으로 삼교천 및 곡교천 2개소 그리고 지방2급하천이 95개소가 있다.

삼교천은 원래 무한천이 분류이고 삼교천은 지류이다. 삼교천의 최상 발원지는 무한천의 발원지인 백월산에서 하구까지 측정된 하천길이가 삼교천의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측정한 거리보다 길다는 사실을 하천학자 이형석¹⁾씨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강점기에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발표된 『조선지리지자료』에 삼교천이 무한천보다 더 긴 것으로 조사되어 무한천이 삼교천의 지류라고 잘못 표기된 이후 삼교천이 분류, 무한천이 지류라는 잘못된 결과를 오늘날까지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류가 본류를 밀어내고 대표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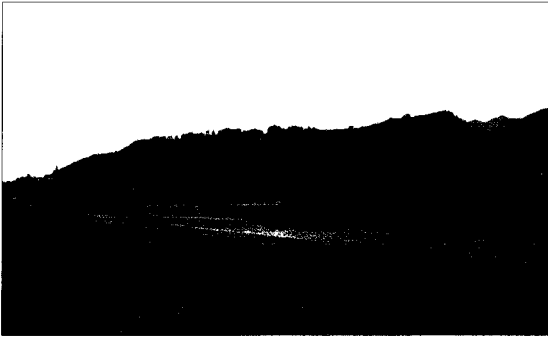
문헌상에 있는 삼교천 및 무한천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9권 홍주목(洪州牧)편의 산천조에 「금마천(金馬川) 주 동쪽 5리에 있으니, 오서산에서 발원하여 덕산현(德山縣) 신교천(新橋川)으로 들어간다. 여양현(驪陽縣) 여양현(驪陽縣) 남쪽에 있다. 오서산에서 발원하며, 신창현(新昌縣) 정포도(井浦道)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 삼교천의 옛 이름이 금마천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발원지는 오서산이며 신교천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금마천의 하류가 신교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책 덕산현(德山縣)편의 산천조에 「신교천(薪橋川) 현 동쪽 17리에 있다. 홍주(洪州) 금마천(金馬川)의 하류이며, 정포로 들어간다. 화척탄(禾尺灘) 현 동쪽 16리에 있으니, 곧 신교천(薪橋川)의 하류이다. 정포도(井浦道) 현 동쪽 30리에 있다. 사읍교천(沙邑橋川) 현 동쪽 17리에 있다.」고 하여 신교천의 하류는 화척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책 제20권 신창현(新昌

縣)편의 산천조에 「정포도(井浦道) 현 서쪽 20리에 있으니 즉 장포(獐浦)의 하류이다. 또 예산현 무한천(無限川)이 여기서 합류하여 면천군(沔川郡) 범근내포(犯斤乃浦)로 들어간다. 장포(獐浦) 현 서쪽 15리에 있다. 도고산에서 발원하여 정포도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 장포에서 무한천과 합류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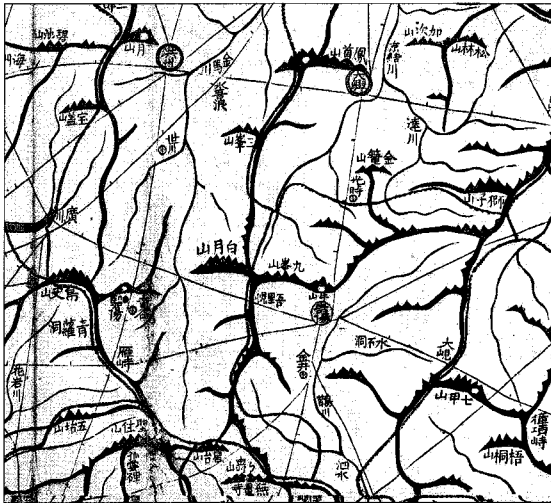
무한천에 관하여는 같은 책 제20권 대흥현(大興縣)편의 산천조에 「내천(奈川) 현 동쪽 1리에 있다. 물의 근원이 들이 있는데, 하나는 청양현(靑陽縣) 어호동(於乎洞)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홍주(洪州) 여양현(驪陽縣)에서 나와서 신창현(新昌縣) 정포(井浦)로 들어간다. 경결천(京結川) 현 동북쪽 6리에 있다. 바로 내천(奈川)의 하류이다.」고 하여 내천이 무한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결천은 내천의 하류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발원지는 청양현과 홍주목의 두 장소인데 실질적으로 대동여지도를 참고하면 백월산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책 예산현(禮山縣)편에 「무한천(無限川) 무한산 서쪽에 있는데, 홍주(洪州) 여양현(驪陽川)의 하류이다. 매양 여름철에 물이 범람하면 큰 뱀이 산에서 나와 냇물에 잠복하여 사람과 가축에 우환을 준다. 호두포(狐頭浦) 현 북쪽 19리에 있는데, 곧 무한천의 하류이다.」라고 되어 있어 예산에 이르러서야 무한천이라 함을 알 수 있으며 그 하류는 호두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이 불어 범람하면 뱀이 많이 나와 사람과 가축에 위협을 가한다고 하여 인근에서 회자되는 현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교천의 하구를 범근내포라 하는데 이에 관하여 같은 책 면천군(沔川郡)편에 「범근내포(犯斤乃浦) 동쪽 27리에 있다. 이곳에 창고가 있어 공주·홍주에서 관할하는 군현의 세미(稅米)를 수납하였다가 서울로 조운(漕運)하여 갔었는데 성화(成化)²⁾ 14년 봄에 물이 얕아져서 배가 바다에 부딪히므로 아산(牙山)의 공세곶(貢稅串)으로 옮겼다.」고 하여 조선 중기까지 세미를 실어 나르던 포구임을 알 수 있고 이후 모래가 많이 쌓여 폐쇄되었다는 대목에서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

1) 이형석 - 한국의 하천(1989, 홍익재)
2) 조선 14대(명 성종)



〈그림 3〉 무한산성(예산산성)



〈그림 4〉 대동여지도의 삼교천, 무한천 발원지

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는 삼교천 방조제가 있어 이를 하구로 보지만 옛날에는 그 상류가 삼교천의 하류라고 보았던 것이다.

삼교천이란 말의 삼교(插橋)는 ‘삽나무(薪)를 가로질러 만든 다리’라 하던 것이 ‘삽다리’라고 변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다. 무한천은 예산의 무한산의 서쪽에 있다 하여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료를 찾아본바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제30호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무한산성(無限山城)이라고 불리는 예산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산산성은 예산읍의 서북쪽에 있는 넓은 평야에 독립되어 솟아있는 낮은 야산에 흙으로 쌓은 둘레 655m의 성터인데, 옛 기록에는 오산성(烏山城)이라 하여 둘레가 2천 2척이라 하기도 하였다. 이 성을 서에서 북으로 감돌며 흐르는 무

한천(無限川)이 천연적인 참호를 형성하며, 주변의 넓은 평야가 성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성벽은 산의 경사면을 이용해 높게 판축(版築)하였던 듯하나, 지금은 높이 2.4m 정도가 남아 있다. 이 성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으나 예산이 백제의 고산(孤山), 혹은 오산(烏山)이었던 점으로 보아 백제 때에 이 지역의 중심적 성터였던 듯하다. 7세기에 김유신(金庾信)의 아들 원술랑(元述郎)이 쌓았다고도 전해오고, 백제 부흥군(百濟復興軍)이 당군을 맞이하여 싸웠던 곳이라고도 전해움을 보아 백제 때의 성이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유서 깊은 성터로 성에서 서쪽으로는 당군을 유도해서 싸운 원벌리(자연마을명) 들판이 보인다. 이성은 일명 “마진산성(馬津山城)”, “예산산성리산성(禮山山城里山城)”이라고도 불린다.³⁾

대동여지도(김정호, 1861년)에는 삼교천이 무한천보다 더 긴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 반해 대동여지도보다 더 일찍 만든 청구도(1834)에는 무한천의 발원지가 더 긴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김정호 본인이 정말로 전국을 답사해서 만든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

대동여지도에서 무한천은 무한성천으로 되어 무한산성과 관련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하고 또한 발원지가 정확히 백월산 북측계곡으로 표기하고 있는 데 반해 삼교천은 성대산 북측계곡으로 표기하여 현재의 보령 대천천 상류유역을 삼교천이 포함시킨 것이 오류로 지적된다. 이렇게 오류가 포함됨으로써 삼교천이 본류가 되고 무한천이 지류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청구도에는 백월산의 위치가 대동여지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있으며 삼교천의 발원지는 백월산보다 훨씬 위에 있는 금룡산으로 표기되어 있어 길이가 더 짧은 것으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이러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오기를 비롯하여 몇 가지 점을 들어 대동여지도를 김정호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대두되고 있다.⁴⁾

다음으로, 백과사전에는 삼교천 또는 무한천에 관한 어떤 자료가 있을까?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것으로 백과사전을 살

3) 예산군 : http://www.yesang.go.kr/culture/sub01_0203_03.jsp

4) 조선닷컴 : 2006.9.28



(그림 5) 청구도의 삼교천, 무한천 발원지

퍼본바 먼저 야후백과사전에 삼교천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장곡면(長谷面) 오서산(烏棲山, 791m)에서 발원하여 북류해서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강. 길이 61km, 유역면적 1,619㎢. 중요한 지류는 청양군(靑陽郡) 비봉면(飛鳳面)에서 발원하는 무한천(無限川), 천안시(天安市) 광덕면(廣德面)에서 발원하는 곡교천(曲橋川), 예산군(禮山郡) 봉산면(鳳山面)에서 발원하는 효교천(孝橋川), 당진군(唐津郡) 면천면(沔川面)에서 발원하는 남원천(南院川) 등이다. 지류가 합류하는 주변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예당평야의 주요부를 이룬다. 1979년 방조제가 완공되어 삼교천은 인공호수로 조성되었고 가뭄의 피해를 겪어온 주변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삼교천 유역에는 덕산도립공원·덕산온천·도고온천·예당저수지와 삼교천방조제 등이 있다.』⁵⁾라고 되어 있어 삼교천의 발원지가 무한천의 발원지가 아닌 삼교천의 발원지로 되어 있으며, 무한천에 관하여는 별도의 항목이 없으며 삼교천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리태니커 사전을 인용한 다음 백과사전에는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당진군·아산시를 북류하여 서해로 흘러드는 강. 길이 61km, 유역면적 1,619㎢이다. 홍성군 장곡면 오서산(791m) 북동계곡에서 발원해 홍성읍과 삼교읍을 관통해 흐른다.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에서는 무한천(無限川)을, 아산시 선장면과 인주면 경계에서는 곡교천(曲橋川)을 합류하

여 삼교호를 이룬 뒤 아산만에 흘러든다. 주요 지류인 곡교천은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갈재고개 북동계곡에서 발원하여 삼교호에 유입되어 본류에 합류한다. 무한천은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백월산 북동계곡에서 발원해 예당저수지를 이룬 뒤 삼교천에 흘러든다. 하류 일대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예당평야의 핵심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 무한천의 발원지도 표기하고 있다. 또한 무한천에 관하여도 별도의 항목을 두어 『충청남도 청양군과 예산군을 북류해 아산만에 흘러드는 강. 길이 67km.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에 있는 백월산(白月山) 북쪽 계곡에서 발원해 대흥면 서남부에서 예당저수지를 이루며, 신암면 하평리에서 삼교천과 합류한 후 예당평야를 지나 아산만에 흘러든다. 상류의 차령산맥과 가야산맥 사이에서는 구조선을 따라 직류하며, 예당평야에 이르러서는 곡류하천이 된다.』⁶⁾고 표기하고 있다.

여타 사전도 대동소이하게 표현하고 있어 발원지에 관한 이견은 없는 듯 하지만 최장발원지의 표기가 뚜렷하지 않아 삼교천이 주하천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다음은 어쩔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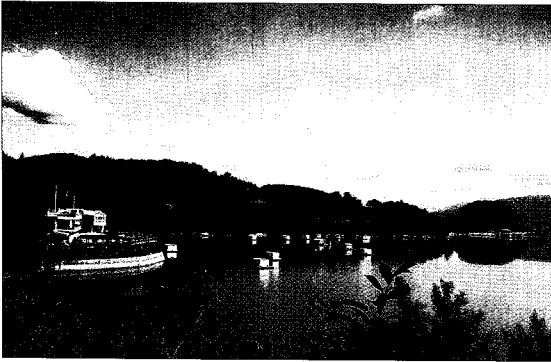
무한천은 발원지에서 출발하여 북류하다가 충남 서북부 제일의 농업용저수지 예당저수지를 만난다. 예당저수지는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에 있는 저수지로. 관개면적 91.89㎢, 총저수량 약 4,700만t. 제방규모는 길이 814.5m, 높이 13.3m이다. 1929년 착공하여 8.15해방으로 한때 중단되었다가 1963년에 완공되었으며, 예산군 대흥면(大興面)과 응봉면(鷹峰面)의 접경지역에 있는 충청남도 최대의 저수지이다.

물넘이에는 한국 최초로 테인터게이트를 설치하였으며 각 수문은 나비 6m, 높이 3.6m로 총배제수량은 초당 1,645t에 달한다. 길이 약 25m의 물넘이에 설치된 26련의 자동식 개폐문은 평상시에는 만수위를 유지하고, 호우시에는 수량조절의 기능을 한다. 이 저수는 예당평야의 농업용수 및 예산·당진(唐津)의 생활용수로 공급된다. 잉어·뱀장어 등 민물고기 양식장과 낚시터로 유명하며, 뱃놀이 및 조정경기연습장으

5) 야후백과사전 : <http://kr.dic.yahoo.com/>

6) 다음백과사전 : <http://enc.daum.net/dic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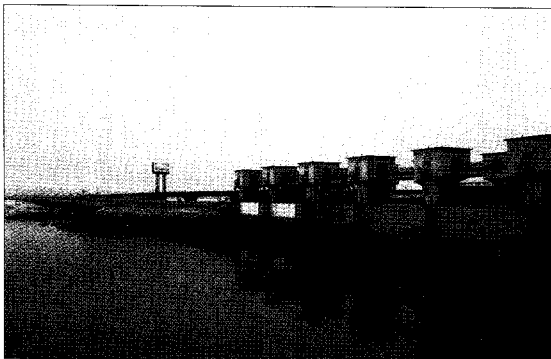
로 활용된다.



〈그림 6〉 예당저수지

예당저수지의 제방자리는 약 200여 년 전 정조2년(1794) 오가면 노계리에 살고 있던 김만진(金萬珍)과 그의 노씨 부인이 앞장서서 막아서 원리밭을 옥도로 만들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국사당보(國賜塘狀)가 모체가 된 것이라고 한다.⁷⁾

삼교천 하구에는 삼교천방조제가 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을 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삼교천방조제는 길이 3,360m, 최대너비 168m, 높이 12~18m로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 신평면(新平面) 운정리(雲井里)와 아산시(牙山市) 인주면(仁州面) 문방리(文方里) 사이로 흘러드는 삼교천 하구를 막은 독이다. 1976년 12월 착공하여 1978년 3월 마지막 물막이작업에 성공, 1979년 10월 완공되었다. 이 방조제는 당진·아산·예산·홍성의 4개 시군 22개 면 지역을 전천후농토(2만 4,700ha)로 개발하기 위해 삼교천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1975~92)의 중추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제방의 건설로 삼교천 하구 일대에 저수량 8,400만



〈그림 7〉 삼교천 방조제

t의 삼교호가 조성되어 4개 시군 지역 농업용수가 해결되었다. 또한, 방조제에 너비 20m, 높이 6m의 6련 12개 문의 배수갑문이 부설되어 초당 5,300t의 담수를 흘려보내는 홍수조절 기능이 가지게 되었다. 방조제 도로 이용으로 경기 남서부와 충남 북서부를 잇는 역할을 하면서 육로거리가 단축되는 간접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2. 현지 답사

삼교천 답사를 위하여 먼저 지형도와 internet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삼교천(무한천)의 발원지 인근하천을 조사한바 청양군 화성면 소재지에서 산정천을 따라 올라가다 정자동에 위치한 정자저수지로 들어오는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며 답사하기로 계획하였다.

2004년 4월 24일 그때는 발원지 답사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발원지의 위치나 모양새 등을 판별하기에서 투른 초보시절에 한번 답사를 한 적이 있고 오늘이 두 번째이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가보기로 하고 전날 먹은 술기운을 지워가며 대전에서 청양으로 아침 일찍 출발하여 차를 몰았다. 청양의 칠갑산을 넘어가면서는 제법 무르익은 단풍구경도 하면서 예전에 봄에 갔던 백월산의 싱그러움을 상상하면서 가을의 경치는 어떨까? 마음에 그려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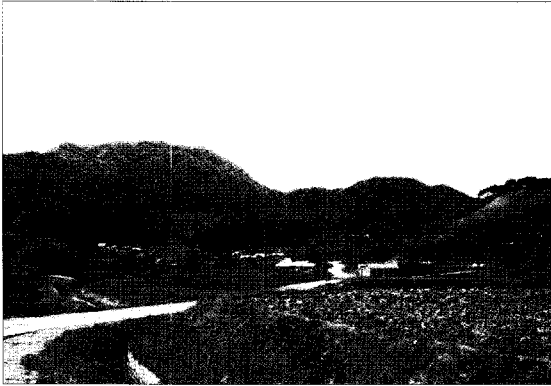
36번 국도를 따라 청양에서 보령으로 가는 길 중간에 화성면 소재지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정자저수지 방향으로 얇은 고개를 넘어갔다.

저 멀리 백월산이 보이고 백월산에서 나오는 물을 가두어 두는 정자저수지의 둑과 그아래로 넓은 들판이 보이며 일부는 벌써 추수를 한 논과 감나무에 열려 잘 익은 감이 집집이 주렁주렁하니 전형적인 시골의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정자저수지를 지나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을 통과하여 일전에 차를 주차하였던 꼭대기의 넓은 공터로 올라가서 차를 주

7) 삼교천의 역사문화(1996년, 당진문화원)

차한 후 장비를 챙겼다.



(그림 8) 백월산 입구에서 바라본 발원지 원경

지난번 답사 때는 배낭을 메고 왼쪽개울로 내려가 개울을 따라 올라갔었다. 그때는 봄이라 시원한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상류방향으로는 며칠 전에 내린 비로 각종 나무의 잎이 제법 크게 자라 있는데 하늘의 햇살은 초여름같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어 오늘보다는 날씨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었다. 또한, 개울을 따라 올라가다 쉬면서 내려다본 개울의 웅덩이에는 사람의 인기척에 놀란 고기들이 바위틈을 헤집고 들어가 숨었다가 내가 가만히 숨죽이고 있으면 그제야 머리를 내밀곤 하였는데 물고기의 종류는 하천 최상류 계곡에서 중류까지의 지역에 주로 산다고 알려진 버들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의 버들치는 산란 철이라 그런지 아주 어린것과 함께 살아 통통한 큰놈까지 여러 개체가 헤엄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오늘은 계곡의 시원함을 생략하고 그 옆으로 난 산책길을 이용하여 임도 있는 곳까지 가기로 하고 길을 걸었다.

드디어 임도가 나타나고 예전에는 무언가를 심어 농사를 짓던 밭가를 지나 한 걸음 두 걸음 위로 향하였다.



(그림 9) 백월산 중턱의 기반암(역암)

지도상에 표시된 하천은 임도 아래의 산책길 옆에서 끝이 나고 있지만 상류로 세척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목격되었고 임도를 넘어서면 하폭이 약간 줄어드는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으로 이곳의 지질구조를 살펴볼 때 그기 반암이 역암인 듯하며 지표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군데군데 자갈이 빠진 형상의 역암 덩어리가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백월산의 정상 인근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면 한때 이곳은 하천의 바닥이었거나 선상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모가 심하게 진행되어 둥글둥글해진 자갈 사이로 흙이 채워져 있고 마치 콘크리트 모양으로 굳었고 이후 지각의 변동으로 융기가 일어나 백월산과 같이 높은 곳으로 변하였다고 추정된다.

전국의 여러 산에 다녀 보았지만 이곳처럼 자갈이 선명히 박힌 역암을 품고 있는 바위는 본적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 답사 시에도 그 중 한 개를 들고 와 집의 화단에 놓았고 오늘도 한 개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주위의 나무는 수령이 적어도 수십 년은 된 듯하고 사람의 출입이 잦지 않은 탓인지 쓰러진 고목이 많이 발견되었다. 어떤 나무는 쓰러진 지 오래된 듯 아주 푸석푸석한 상태로 풍파를 맞고 있었다.



(그림 10) 흡수로

해발 210m 정도 이르러서는 가느다랗게 흐르던 살개천의 물길이가 끊어지고 너털바위지대가 나타났다. 또한, 물이 너털지대의 여러 바위틈으로부터 제각각 흘러 한곳으로 합치는 모양을 이루었다. 이곳에서부터는 바위에 긴 이끼를 보고 제일 많은 곳을 찾아 상류로 올라갔다. 이렇게 왼편으로 약 50m 정도 경사지게 올라가니 흡수로 형태의 완연한 수

로가 나타나고 수로의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해발 320m 지점에 이르러서는 가파른 경사가 시작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백월산과 이웃하는 봉우리(EL.428.9m) 사이의 안부로 올라가는 수로와 백월산으로 향하는 두 개의 수로로 나누어지며 자세히 관찰하니 백월산으로 향하는 수로가 좀 더 발달되어 있어 이리로 향하였다. 바위틈을 지나 약 50m 정도 올라가니 산의 경사가 급하여 형성된 너털지대가 나오면서 수로는 끝이 났다. 너털지대는 이끼가 바위를 감싸고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완연히 구분되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바위가 습하면 이끼가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끼가 있는 쪽이 물이 흐르는 방향일 것으로 추측되나 수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천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삼교천(무한천)의 발원지는 이곳 백월산의 해발 405m 높이의 너털지대 밑을 발원지로 정하였다. 가져온 GPS로 확인하니 삼교천 발원지는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백월산 북쪽사면 너털지대가 시작되는 점으로 북위 36° 23' 44", 동경 126° 42' 46"(GRS80좌표계)로 확인되었다.

이곳의 발원지는 비록 샌드 아니고 뚜렷한 표식도 없으나 너털지대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점과 하루로 발달하는 수로의 시작점이라는 것으로 또 다른 발원지 유형의 하나로 기록될 만한 지점이다.



〈그림 11〉 이끼가 있는 너털바위



〈그림 12〉 이끼가 없는 너털바위

계속하여 경사 급한 너털지대를 올라가 백월산 안부에도 착하여 한숨을 쉬고 다시 안부의 등산로를 따라 정상으로 향하여 드디어 정상에 도착한 후 정상석을 확인하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백월산의 정상에는 작은 평상이 하나 있었다. 일전에 정상에 왔을 때에는 화강암을 깎아 만든 정상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양군에서 세웠고 백월산이라는 명칭과 그 아래에 570m라는 표고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 옆의 풀숲에는 일전에 보았던 정상석이 버려져 있었다. 아마도 일전의 정상석에 표시된 표고 표시가 맞지 않아(500m로 되어 있었는데 지도상 표고보다 70m의 차이가 났다) 새로 세운 듯하였다.



〈그림 13〉 삼교천(무한천) 발원지

정상에서 한참을 백월산 아래로 저 멀리 물이 흘러가는 방향인 예당저수지 쪽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은 후 아침에 오면 서 준비한 김밥과 음료수를 마시며 또 하나의 발원지 답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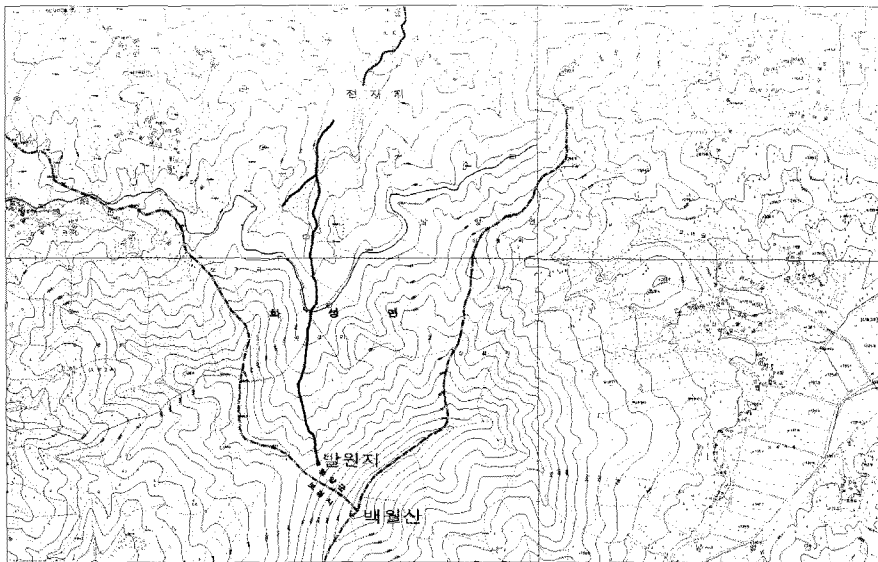
〈그림 14〉 정상에서 바라본 정자저수지 및 하류

마쳤구나 생각하였다.

산을 내려오면서도 몇 번이고 이쪽저쪽을 확인하면서 내려왔다. 혹시나 다른 쪽에 진짜 발원지가 있으면 그곳을 찾아야 하는데 하는 염려가 되었고, 또한 삼교천의 발원지는 다른 곳의 그곳과는 다른 형태의 발원지이기엔 정확한 지점을 잡

기에는 무척 조심스럽기도 하였다.

이후 무한천의 상류로부터 예당저수지까지 차를 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천의 발달상황을 조사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



〈그림 15〉 삼교천(무한천) 발원지